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4월 27일
제2050호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8-29)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김옥순 수녀 작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다해)

제 1 독서 사도 5,12-16 |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화답송 시편 118(117)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서 묵시 1,9-11나.12-13.17-19 |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주님 부활 대축일 교황님 강론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안젤로 코마스트리 추기경 대독) 성 베드로 광장, 2025년 4월 20일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러 달려갔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두 제자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달렸습니다”(요한 20.4 참조). 주님 부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 요한이 보여준 이 달음질은 예수님을 찾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내적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의 포로가 되지 않으셨고, 더 이상 수의에 감싸여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가두거나 과거의 영웅으로 만들거나 혹은 박물관 전시실의 조각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단하게 그분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그분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일상 속에서, 무덤이 아닌 모든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 안에,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숨어 계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는 살아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각자가 베푸는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 삶 안에 그분을 모시도록 준비시킵니다. 이는 결코 정적인 종교적 틀에 안주하거나 신앙의 위안 속에 평온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제자들처럼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눈을 열어주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하고 연약하며 상처 입은 삶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어둠을 이기시며, 세상의 암흑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이 희망의 선물을 새롭게 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그 안에 담고,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며, 우리 삶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이 희망에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이 세상의 허상에 묶어두거나 슬픔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리며 그분의 벗이 되는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여정을 비추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 신앙의 경이로움 속에서, 평화와 해방에 대한 모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2025년 4월 21일 선종 -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

영원한 목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린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바치는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양 떼를 돌보게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신비를
충실히 거행하였으니,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사랑으로 돌보시어
온 교회를 가르치는 슬기로운 교사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훌륭히 수행하게 하셨으니,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양 떼를 돌보는 대사제로 뽑으신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이제 하느님 나라의 사제단에 들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였으니,
이제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하늘의 성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유언

‘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ando atque Eligendo)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지상 삶이 저물어 감을 느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굳은
희망 안에서, 제가 묻힐 자리에 대한 마지막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저의 삶과 사제직, 주교직을 우리 주님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 맡겨드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 육신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교황
대성전인 성모 대성전에서 쉬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제 마지막 지상 여정이 이 유서 깊은 성모 성지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도 여정의 시작과 끝마다 이곳에 들러
기도하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저의 지향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성적 보살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무덤은 앞서 언급한 교황 대성전의 파올리나 경당(로마
백성의 구원 경당)과 스포르차 경당 사이에 있는 측면 회랑의
안치 공간에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는 첨부 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지면 아래 있어야 하며, 단순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Franciscus’(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제 무덤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한 은인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후원금을 성모 대성전으로
송금하도록 조치해 놓았고, 이 리베리오 의전 사제단 특별
책임자인 롤란다스 마크리카스 몬시뇰에게 적절히
지시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실 분들에게
주님께서 마땅한 상급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 맞이하는 고통을, 온 누리의 평화와 만민의
형제애를 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Franciscus 1936 - 2025

1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Catholic Home Missions Appeal>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이번 주일(4월 27일) 모임 안내

- 하상회 월례 모임 : 오전 11:30, (B-3,4)
- 안나회 월례 모임 : 오전 11:30, (A-1,2,3,4,)
- 핸드벨 피크닉 : 오후 12:30, 나눔터
- 자비 주일 기도회 : 오후 3시, 성전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강의 : 오후 4시, 성전

3 다음 주간 모임 안내

- 회장단 회의 : 4월 30일(수) 저녁 6시 (회의실)
- 베드로회 형제 모임 : 5월 2일(금) 저녁 8시 (B-4)
- 제86차 예비자 입교식 : 5월 4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구역 봉사자 회의 : 5월 4일(일) 오전 11:30 (B-3,4)
- K of C 모임 : 5월 4일(일) 오전 9:15 (B-3)
- CCD 은총 잔치 : 5월 4일(일) 오후 3시 (하상관)
- 사도 임원회의 : 5월 7일(수) 저녁 7시 (B-1,2)

4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방문

- 일정 : 4월 25일(금) - 4월 29일(화)
- 우리 본당을 방문하시는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원주교구 교구장)을 환영합니다. 착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교님의 영육간 건강을 지향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5 5월 첫 주 전례 안내

- 5월 1일(목) : 저녁 7:30 떼제 미사 후 성체 강복
- 5월 2일(금) : 저녁 6:45 미사 전 십자가의 길, 7:30 미사
- 5월 3일(토) : 토요일 신심 기도 및 미사, 오전 9시 묵주 기도 및 묵상, 고해성사 오전 10:30 미사

6 봉성체

- 일시 : 5월 2일(금) 오전 9시부터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7 성인 견진 교리 공부 안내

- 일시 : 5월 6일(화) - 6월 3일(화), 매주 화요일 7:30 미사 후
- 접수 : 4월 27일(일) 까지 사무실로 신청 (준비서류 - 세례 증명서, 교적, 혼배 증명서)
- 견진식 : 6월 8일(일) 오후 2:30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 이미 견진을 받으신 분도 견진 교리반에 오셔서 교리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견진 준비하시는 분들께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파티마 성모님 가정 순례 접수 (선착순)

- 순례 기간 : 5월 18일(일) - 6월 29일(일)까지
- 신청 : 5월 4일(일), 11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이종석 루카 (703) 254-7963
- 순례 시 준비 사항과 기도하는 방법은 후에 파티마 봉사자분들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9 교중 미사 반주자를 찾습니다

- 전공자 혹은 반주 경력, 가톨릭 교우로서 반주에 관심있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주님께 봉헌할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조건이 잘 맞으면 봉사 비용도 지불합니다.)

10 우리 성당 성지 순례 계획 안내

- 우리 성당에서 추진하는 몇 년 간의 성지 순례 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지 순례는 배 다니엘 주임 신부님이나 양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동행합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9월 15일(월) - 26일(금) : 고국 성지 순례 (올해 고국 성지 순례에 관심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11월 24일(월) - 28일(금) : 과달루페 성모님 성지순례
- 2026년 4월말 5월 초 : 동유럽 성지 순례
- 2027년 4월 :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9월 : 고국 성지 순례
- 2028년 5월 : 성모님 성지 및 메주고리에 순례

11 매달 첫 금요일 십자가의 길 십자가, 초 복사 모집

- 매달 첫 금요일 미사 전에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와 초 복사해 주실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가능한 시간들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성당에 모실 예수 성심상 후원자를 찾습니다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매년 예수 성심 성월에 성당 제대 쪽에 모실 예수 성심상을 후원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본당 주차장에는 수녀님들을 위한 지정 주차 자리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운전해서 오시는 수녀님들에 대한 배려로 자리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그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분들이 주차하지 않는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피정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맞아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께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강의하십니다.
또한 자비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있으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7일(일)
오후 3시 - 3:50 자비의 기도 (분당)
오후 4시 - 5:30 주교님 특강 (분당)

※ 주교님 특강으로 인해 4월 27일(일)
오후 5시 미사는 6시에 있습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04/27 이번 주	센터빌 2반
05/04 다음 주	센터빌 3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

봉헌금	\$ 16,919.00
교무금	\$ 11,790.00
교무금(신용카드)	\$ 4,750.00
감사 헌금	\$ 4,173.00
2차 헌금	\$ 4,250.00
부활 대축일 감사 헌금	\$ 7,442.00
온라인 봉헌	\$ 1,845.00
합계	\$ 51,169.00

버지니아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2025년 5월 1일(목) 오후 5:00 - 6:00
- 2025년 5월 2일(금) 저녁 8:00 - 9:00
- 2025년 5월 4일(일) 오전 6:00 - 7:00

- 교황 서거 관련 뉴스 특집
- 주일강론
- 바이블 무브 - 신약 : 요한복음서 (2)
- 손남민 즈가리아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